

완자

공부력

초등 전과목 어휘 1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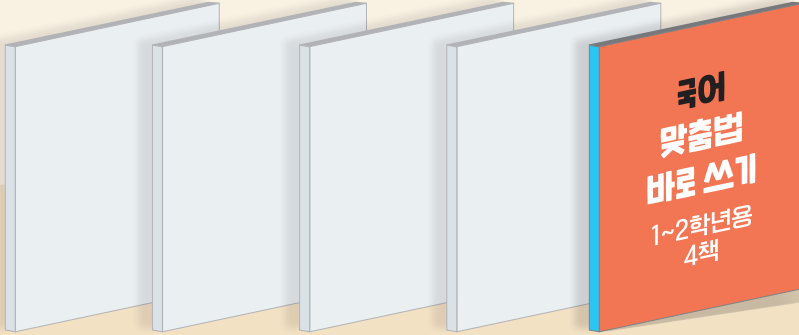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완자 공부력 가이드 2

정답 6

공부력 가이드

완자 공부력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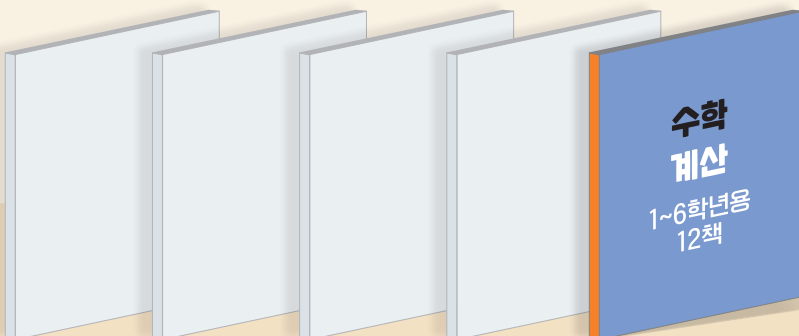
쓰기력



어휘력



독해력



계산력



완자 공부력 시리즈로 공부 근육을 키워요!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와 관련된
공부력을 키워야 여러 교과를 터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어휘력과 독해력, 쓰기력, 계산력을 바탕으로 한
'공부력'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상당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한 학습이
가능한 '완자 공부력 시리즈'로 공부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튼튼한 공부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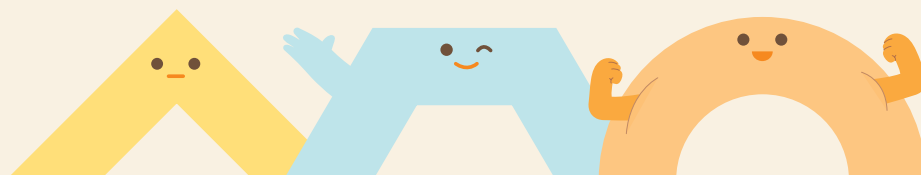


효과적인 **공부력 강화 계획**을 세워요!

● 학년별 공부 계획

내 학년에 맞게 꾸준히 공부 계획을 세워요!

		1-2학년	3-4학년	5-6학년
기본	독해	국어 독해 1A 1B 2A 2B	국어 독해 3A 3B 4A 4B	국어 독해 5A 5B 6A 6B
	계산	수학 계산 1A 1B 2A 2B	수학 계산 3A 3B 4A 4B	수학 계산 5A 5B 6A 6B
	어휘	전과목 어휘 1A 1B 2A 2B	전과목 어휘 3A 3B 4A 4B	전과목 어휘 5A 5B 6A 6B
		파닉스 1 2	영단어 3A 3B 4A 4B	영단어 5A 5B 6A 6B
확장	어휘	전과목 한자 어휘 1A 1B 2A 2B	전과목 한자 어휘 3A 3B 4A 4B	전과목 한자 어휘 5A 5B 6A 6B
	쓰기	맞춤법 바로 쓰기 1A 1B 2A 2B		
	독해			한국사 독해 인물편 1 2 3 4 한국사 독해 시대편 1 2 3 4



○ 시기별 공부 계획

학기 중에는 기본, 방학 중에는 기본 + 확장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요!

방학 중			
학기 중			
기본			확장
독해	계산	어휘	어휘, 쓰기, 독해
국어 독해	수학 계산	전과목 어휘	전과목 한자 어휘
		파닉스(1~2학년) 영단어(3~6학년)	맞춤법 바로 쓰기(1~2학년) 한국사 독해(3~6학년)

예시 초1 학기 중 공부 계획표 주 5일 하루 3과목 (45분)

월	화	수	목	금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전과목 어휘	파닉스	전과목 어휘	전과목 어휘	파닉스

예시 초4 방학 중 공부 계획표 주 5일 하루 4과목 (60분)

월	화	수	목	금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전과목 어휘	영단어	전과목 어휘	전과목 어휘	영단어
한국사 독해 인물편	전과목 한자 어휘	한국사 독해 인물편	전과목 한자 어휘	한국사 독해 인물편

01

어리둥절했다

- 무섭다: 걱정스럽고 두려워하다.
- 즐겁다: 마음에 들어서 기쁘고 흐뭇하다.

02

교과서

03

✓ 졸업

04

두근거린다

- 흔들리다: 위아래, 옆으로 움직이다.
- 가라앉다: 물이나 공중에 떠있거나 섞여 있다가 밑바닥에 내려와 깔리다.

05

1 (개고 | 개이고) 2 (헤매다 | 헤매이다)

- '개다'는 '흐리거나 낡은 날씨가 맑아지다.'라는 뜻이며, '헤매다'는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라는 뜻으로, 두 단어 모두 어휘의 원래 모양에 '-이-'가 없다.

06

1 입 학 2 설 레 다 3 어 땡 게

07

✓ 뜻밖에 놀라운 일을 겪어서 어리둥절하다.

- '어안이 병병하다'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산신령이 나타나서 나무꾼이 놀란 상황에 쓰였다. 그러므로 이 말은 놀라운 일을 당해서 어리둥절하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08

초등학교에 입 학 하기 전날의 마음

- 이 일기에는 초등학교 입학 앞둔 예비 초등학생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09

⑤ 입학 전날 교과서를 미리 살펴보았다.

- 글쓴이는 미리 교과서를 읽어 보았으며, 처음 보는 내용이 많았다고 하였다.

10

기대된다. (○)

- 글쓴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들떠서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하였다.



01 교무실

02 보건실

03 뜻 (선생님 | 학생)이 (선생님 |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준다.

04 고쳤다

- 지키다: 무엇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며 보호하다.
- 아프다: 몸이나 마음이 아주 편하지 않다.

05 1 (가르쳤다 | 가리켰다)
2 (가르쳤다 | 가리켰다)

06 1 ㅅ 2 ㅆ

- 1 '낫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진다는 의미이다.
- 2 '다치다'는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몸에 상처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어제 있었던 일이므로 과거를 나타내는 '-았/었-'이 붙어 '다쳤다'라고 쓴다.

07 ☒ 병 주고 약 준다

- 제시된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숲을 함부로 사용하였다가 나무를 심어 숲을 돌보겠다고 하였다. 이런 행동은 피해를 준 후에 도와주겠다는 것이므로 '병 주고 약 준다'와 의미가 비슷하다.

08 민지가 교 무 실 에 계신 선생님께 가는 방법

- 이 글은 처음 학교에 간 학생이 교무실이 어디인지 찾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09 (1 | 2 | 3)

- 안내도를 통해 민지가 가야 하는 교무실은 1층 1번 방임을 알 수 있다.

10 음악실

-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음악을 공부하는 일이다.



01

건널목

- ...
- 복도: 건물 안에 다니게 된 통로
 - 차길: 자동차나 기차가 다니는 길

02

갈림길

- ...
- 교생길: 어렵고 고된 일이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
 - 바른길: 굽지 아니하고 곧은 길

03

☒ 현관에 신발들이 무사히 놓여 있었다.

- ...
- 첫 번째 문장에는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이 가지런한 상태로'라는 뜻의 '나란히'나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널려 있어 너저분하다.'라는 뜻의 '어지럽게' 등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1

등

교

2

하

교

05

1

(깨끗이 | 깨끗히)

2

(조용이 | 조용히)

3

(꼼꼼이 | 꼼꼼히)

06

1

눈길

2

갈림길

3

지름길

07

☒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상황

- ...
- 두 번째 문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상황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갈림길에 서다'를 쓸 수 없다.

08

 학교에 안전하게 등 교 하는 방법

- ...
- 이 글은 길을 걸을 때와 버스에 탈 때로 나누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09

1

X

2

X

3

O

- ...
- 1 갈림길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도록 학교로 가는 길을 찾아 가야 한다.
- 2 횡단보도에서는 초록불에 길을 건너야 한다.

10

④ ㉠

- ...
- ㉠을 통해 버스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치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다.



01 주위

02 뜻 (정해진 | 생각한) 시각보다 (늦게 | 빨리) 가다.

03 돌아다녔다

- 살펴보다: 자세히 조심하여 보다.
- 뛰어다니다: 여기저기 뛰면서 돌아다니다.

04 1 교실 2 미용실 3 화장실

05 1 돌아다니다 2 둘러싸다

06 서준

07 ☒ 숨바꼭질을 했는데 친구가 어디 숨었는지 이다.

- 숨은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의 '오리무중'을 사용할 수 있다.

08 지수가 학교에 지각을 한 일

- 이 글은 지수가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하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09 ① 늦잠을 자서

- 지수는 어제 만화를 보느라 늦게 잠자리에 드는 바람에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고 말았다.

10 1 ○ 2 ○ 3 ✕

- 지수가 교실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계셨고, 주위 친구들은 늦게 온 지수를 쳐다보았다.



01

인사말

- 거짓말: 남을 속이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
 • 귓속말: 남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작은 소리로 하는 말

02

소개

03

✓ 친구가 자신은 어려운 책을 읽는다며 나를 숨죽였다.

- 두 번째 문장에는 기세를 꺾어 약해지게 만든다는 의미의 '기죽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차이점

05

✓ 다치다 - 가르치다

- '다치다'는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신체에 상처가 생기다'라는 뜻,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라는 뜻으로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어휘들이다.

06

1 (다르다 | 틀리다) 2 (달랐다 | 틀렸다)

07

✓ 수나 정도의 차이가 매우 적다.

- '종이 한 장 차이'는 얇은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뜻이다. 간격이나 틈이 매우 작다는 의미와 함께, 수나 정도의 차이가 매우 적다는 의미를 지닌다.

08

자 기 소 개 를 하는 날

- 이 글은 진우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한 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09

③ 어젯밤에 꾸곤 꿈의 내용

- 진우는 어젯밤에 꾸곤 꿈이 아니라 앞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10

② 친구들이 나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좋겠어.

- 이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진우가 자기소개를 마친 후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01 뜻 (관계를 | **거리**를) 꽤 (**멀**게 | 가깝게) 하다.

02 **잊어버리다**

03 ⑤ 가르쳤다

- ...
- ① '쓰다'는 글로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 ② '기록하다'는 나중에 남길 목적으로 적는다는 뜻이다.
 - ③ '필기하다'는 내용을 받아 적는다는 의미이다.
 - ④ '메모하다'는 짧게 글로 남긴다는 의미이다.
 - ①~④는 '적다'와 의미가 비슷하다.

04 발

... 발(發)은 '나타나다, 밝히다' 등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로 발명(發明), 발표(發表), 발견(發見)에 쓰인다.

05 1 (잊어버렸다 | **잃어버렸다**) 2 (**잊어버렸다** | 잃어버렸다)

... 1은 물건인 '색연필'이 사라진 것이므로 '잃어버렸다'를, 2는 색연필을 새로 사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진 것이므로 '잊어버렸다'를 사용해야 한다.

06 1 ㉠ 2 ㉠ 3 ㉡

... '밥이 적었다'는 밥의 양이 보통보다 모자라다는 뜻으로, 3 문장에 쓰인 '적다'의 뜻은 ㉡이다.

07 ☒ 할 말을 잇다

... 첫 번째 문장에서는 친구의 뻔뻔한 태도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잘못을 하고도 당당한 그 사람의 모습에 기가 막히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08 **수** **업** 시간에 하는 일

... 이 글은 학교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09 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공책에 적는다.

... 선생님의 말씀을 모두 공책에 적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기억해 둘 내용이 있으면 적어야 한다.

10 1 ✕ 2 ○ 3 ○

... 기억해 둘 내용을 공책에 적을 때는 글자를 정확하게 쓰고, 낱말을 알맞게 띄어 써야 나중에 알아보기 쉽다.



01 과자를 사기 전에 봉지 겉에 (그려진 | 표시된) 가격을 살펴보았다.

... '표시'는 '표를 하여 바깥에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다.

02 과목

03 ④ 고치다

... '고치다'는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라는 뜻이다. '늦잠 자는 습관', '잘못 쓴 답',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은 바로 잡아야 할 대상이다.

04 ☒ 잊어버리다

... '헤매다'는 '길을 잃거나 무엇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라는 뜻이다.
'어리둥절하다'는 '무슨 일인지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여 얼떨떨하다.'라는 뜻이다.

05 1 ㉠ 2 ㉡ 3 ㉢

06 1

총

아

한

다

 2

기

억

하

고

07 ③ 지갑을 잃어버린 후 잘 챙기자고 말했다.

... ③은 이미 지갑이 없어지고 난 후에 지갑을 챙기자고 하는 상황이다. 일이 잘못된 후에 고칠 방법을 찾는 것이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를 쓰기에 알맞다.

08 오늘

국

어

 시간에 한 일

... 이 글은 글쓴이가 국어 시간에 글을 쓴 일을 다루고 있다.

09 ⑤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연습을 한다.

... 국어 시간에는 글을 읽거나 쓰고, 발표를 하거나 친구들의 발표를 듣는다.

10 ☒ 유치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 대한 내용

... 오늘 국어 시간에 쓴 글의 주제는 '친구'로, 글쓴이는 유치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 대해 글을 썼다.



01 ① 다투다 ② 반성

02 뜻 (다른 사람 |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 못하게) 하다.

03 ⑤ 머쓱하여

... '머쓱하다'는 '창피를 당하거나 흥이 꺾여 쑥스럽고 어색하다.'라는 뜻이다.

04 ① 반칙 ② 반대

05 ① ㉠ ② ㉡ ③ ㉢

- ... ① 햇볕 아래에서 빨래의 물기를 말리는 것이므로 ㉠의 뜻이다.
 ② 선생님이 다투는 친구들의 행동을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의 뜻이다.
 ③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의 행동을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의 뜻이다.

06 ① ㉠ ② ㉡ ③ ㉢

07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 힘이 센 사람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중간에 낀 약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뜻의 속담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이다.
 • '병 주고 약 준다'는 자기가 피해를 준 후 도와주는 척 한다는 뜻의 속담이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미 일이 잘못된 후에 대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는 뜻의 속담이다.

08 지호가 학교에서 **짜** 과 다툰 일

... 이 글은 지호가 연필 때문에 짜와 싸운 일을 쓴 글이다.

09 ④ 짜이 연필을 빌려주지 않아서

... 지호는 짜에게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짜는 새 연필이라 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다투었다.

10 ☒ 선생님께 혼난 것이 서운했다.

... 지호는 짜이 연필을 빌려주지 않아 짜에게 서운함을 느꼈으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머쓱해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01 뜻 (남이 | 내가) 하는 말이나 읽는 글을 들으면서 (다르게 | 그대로) 옮겨 쓰다.

02 대답

03 외웠다

- 정리하다: 흐트러진 것이나 어지러운 것을 가지런하고 바르게 하다.
- 잊어버리다: 기억하지 못하다.

04 1 초 2 비 3 켜 4 스, 트 5 L, O 6 L, R, S

05 1 L 2 G

06 ③ 길을 잘 기억하지 못하다.

- 밀줄 그은 말은 예서가 음악실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리나에게 길을 잘 외우지 못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다. 그러므로 '길눈이 어둡다'는 길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 ① '길을 뚫다'의 뜻이다.
- ② '길을 재촉하다'의 뜻이다.
- ④ '앞길이 멀다'의 뜻이다.
- ⑤ '발길이 멀어지다'의 뜻이다.

07 ☒ 도망친 강아지가 어디로 갔는지는 이었다.

- 강아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뜻하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는 한자 성어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8 반 아 쓰 기 시험 보는 날

- 이 글은 수아가 받아쓰기 시험을 준비한 일과 받아쓰기 시험을 본 후의 일을 쓴 글이다.

09 ☒ 엄마가 읽어 주시는 글을 받아쓰며 연습해 보았다.

- 수아는 받아쓰기를 잘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받아쓰기를 해 보았고, 계속 틀리는 낱말은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

10 ③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선생님께서 백 점을 맞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아를 칭찬해 주셨다.

01 **뜻** 손톱이나 (납작한 | **뽀족한**) 물건 따위로 (찌르다 | **문지르다**).

02 ③ 닦다

03 **흠집**

- 표시: 생각이나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 자리: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차지하는 곳

04 1 (**비슷한** | 반대인) 2 (**비슷한** | **반대인**)

05 1 **칼** 2 **물**

06 1 (글꺾다 | **굵었다**) 2 (**닳았다** | 닳았다) 3 (**없애고** | 업새고)

- ‘굵었다’는 [글꺾다]로, ‘없애고’는 [업새고]로 발음하지만 글씨를 쓸 때에는 겹받침인 ‘러, 뻬’를 그대로 써야 한다. 겹받침 ‘ㄱ’은 [ㄱ]으로 소리 나지만 쓸 때에는 ‘ㄲ’을 그대로 써야 한다.

07 ⑤ 모두 전체가 받은 상품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간 후 말이 없는 상황

- 모두 받은 상품을 모둠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한 사람이 혼자 차지한 상황이므로 이익을 혼자 가지고는 모르는 체한다는 의미의 ‘입을 닦다’를 쓰기에 알맞다.

08 자기 **자** **리** 를 정리하는 방법

- 이 글은 선생님이 자기 자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09 ④ 가방 안에 있는 자기 물건들을 정리하기

- 선생님은 책상 위와 책상 서랍을 정리하라고 하셨지만 가방 안에 있는 자기 물건을 정리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10 ☒ **뽀족한** 물건으로 다른 물건을 긁지 않도록 한다.

- 이 글에서 청소를 하며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뽀족한 물건으로 다른 물건을 긁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01 햇볕

02 내리쬘자

- 뉘다: 묻어있는 것을 문지르다.
- 불어오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다.

03 마르다

- '젖다'는 '물이 배어 축축하게 되다.'라는 뜻이다. 반면 '마르다'는 '물기가 증발하여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 '적다'는 '수나 양,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 '잠기다'는 '물속에 물체가 넣어지거나 가라앉게 되다.'라는 뜻이다.

04 비치고 돌아난다

05 1 주룩주룩 2 짹짹 3 맴맴

06 1 ㉠ 2 ㉡

- 1 씨앗을 심어서 싹이 벌어졌다는 의미이므로 ㉠의 뜻이다.
- 2 겨울이 되니 추워서 손등에 틈이 생겨 갈라졌다는 의미이므로 ㉡의 뜻이다.

07 세뱃돈을 받아 평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샀다.

- 세뱃돈으로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산 것은 원하는 일을 이룬 상황이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 계속되어 크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와 관련이 없다.

08 여름 날씨의 특징

- 이 글에서는 사계절 중 여름 날씨의 특징을 설명하고, 여름 날씨와 관련된 우리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09 햇볕이 짹짹할 때 우산을 쓴다.

-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우산을 써도 젖기 쉽다고 하였다. 햇볕이 짹짹할 때 햇볕을 가리기 위해 쓰는 것은 양산이다.

10 식물이 잘 자란다.

- 이 글의 뒷부분에서 여름이 되어 햇볕이 내리쬘고 비가 오면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하였다.

01 음식 옆에 젓가락이 (나란히 | 무사히) 놓여 있다

02 뜻 (눈물을 | 싸움을) 그치고 다시 (사이좋게 | 차갑게) 지내다.

03 인정

04 다짐

- 느낌: 느껴지는 것
- 소개: 서로 모르는 둘이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도록 인사를 시키는 것

05 1 ㉠ 2 ㉡

- 1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가 국어를 확실히 잘한다고 여기는 상황이므로 ㉠의 뜻이다.
- 2 의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상황이므로 ㉡의 뜻이다.

06 1 나 란 히 2 확 실 히

07 ⑤ 매일 줄넘기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루만 하고 그만두었다.

- ⑤에는 줄넘기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하루만에 그만두고 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 있다. '작심삼일'은 이렇게 다짐이 굳지 않아 다짐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 상황에 쓰기 알맞다.

08 고래가 사 자 를 도울 수 없는 이유

- 이 글은 사자와 고래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09 ☒ 힘이 세다.

- 사자는 땅에서 가장 힘이 세고, 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였으므로 두 동물은 힘이 세다는 공통점이 있다.

10 ② 사자와 사는 곳이 다르다.

- 사자는 땅에서 들소 떼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고래는 바다에 사는 동물이라 땅으로 갈 수 없어서 사자를 도와주지 못했다.

01 ① 정류장 ② 노약자

02 **갈아타려고**

- ...
- 갈아입다: 옷을 바꾸어 입다.
 - 갈아엎다: 땅이나 흙을 갈아서 뒤집어엎다.

03 **비슷하다**

- ...
- 다르다: 서로 같지 않다.
 - 사이좋다: 서로 친하다.

04 ① 발표자 ② 소비자 ③ 과학자

05 ① 닳다 ② 굶다 ③ 삶다

- ...
- '굶다'는 '먹지 못하거나 먹지 않다.'라는 뜻을 지닌 어휘이다.
 - '삶다'는 '물에 넣고 끓이다.'라는 뜻을 지닌 어휘이다.

06 ① 늙다 ② 같다 ③ 강하다

- ...
- ① '젊다'는 '일생에서 육체적 성장이 최고에 도달하는 시기에 있다. 나이가 많지 않다.'라는 뜻으로 '나이를 많이 먹다. 나이가 많이 들다.'라는 뜻의 '늙다'와 뜻이 반대이다.
 - ② '같다'는 '서로 다르지 않다. 차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다르다'와 뜻이 반대이다.
 - ③ '약하다'는 '힘이나 세력이 강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세다.'라는 뜻의 '강하다'와 뜻이 반대이다.

07 ☒ 우리 반에서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남녀노소 함께 논다.

- ...
- 세 번째 문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닌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함께 논다고 하였으므로 '남녀노소'를 사용하기에 어색하다.

08 **버 스**를 갈아탄 일과 버스 안의 노약자 자리

- ...
- 이 글은 안전 체험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버스를 갈아탄 일과 버스 안에 있는 노란색 자리에 대해 알게 된 일을 쓴 글이다.

09 ③ 버스 번호를 잘 보고 탄다.

- ...
- 버스들의 생김새가 모두 비슷하므로 버스의 번호를 잘 보고 갈아타야 한다.

10 노란색

- ...
- 선생님은 버스 안에 있는 노란색 자리를 보고 노약자를 위한 자리라고 설명해 주셨다.

01 날

02 곳다

03 **대고**

- 놓다: 물건을 어디에 있게 두다.
- 만들다: 없던 물건을 힘과 기술을 들어 새로 생기게 하다.

04 **비둘게**

05 1 (반드시 | **반듯이**) 2 (**반드시** | 반듯이)

06 1 ㉞ 2 ㉟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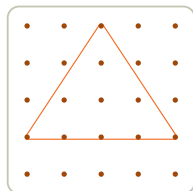
07 ☒ 일을 힘 안 들이고 아주 쉽게 해치운다는 말

- 민준이는 자기의 숙제를 누나에게 해 달라고 하여 쉽게 숙제를 하려고 하였다. 밑줄 그은 속담은 손조차 사용하지 않고 코를 푼다는 뜻으로, 일을 힘들이지 않고 아주 쉽게 한다는 말이다.

08 종이로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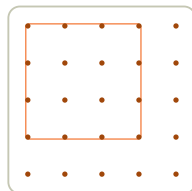
- 이 글에서는 삼각형과 사각형이 무엇인지 설명한 후에, 종이를 오려 삼각형과 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09 **삼각형**



〈예시〉

사각형



〈예시〉

- 삼각형은 검은 선 3개로 둘러싸인 도형, 사각형은 검은 선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제시된 점을 연결하여 자를 대고 검은 선을 그려서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과 사각형을 그려 보자.

10 ☒ 가위로 종이를 오릴 때는 가위의 날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 사각형은 검은 선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며 자를 대고 선을 그리면 선을 반듯하게 그릴 수 있다.

01 ① 게시판 ② 모둠

02 뜻 어떤 일에 대하여 (자신의 | 서로) 의견을 (주장하다 | 주고받다).

03 조심해서

- 붙다: 무엇에 닿아서 떨어지지 않다.
- 정리하다: 흐트러진 것이나 어지러운 것을 가지런하고 바르게 하다.

04 ① 심장 ② 애국심

05 ① ㉠ ② ㉡ ③ ㉢

06 ① 모 둠 ② 게 시 판 ③ 의 논

07 ☒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정하기 위해 서로 마주 대하다.

- 제시된 문장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는 상황이다.
- 정신 못 차리게 몹시 바쁘다는 뜻의 말은 '눈코 뜰 새 없다'이다.
- 분명하지 않은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는 뜻의 말은 '머리에 맴돌다'이다.

08 공 기 가 있는지 알아보는 탐구 활동

- 선생님이 과학 탐구 활동을 하기 전에 모둠을 정해 주고, 탐구 활동을 할 때 조심할 점을 설명하였다.

09 ② 내가 속한 모둠

- 선생님은 교실 뒤편 게시판에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한 모둠을 짜서 붙여 두었다고 말하였다.

10 ☒ 그릇에 든 물을 쏟지 않는다.

- 선생님은 탐구 활동을 할 때 물이 든 그릇을 사용하므로 물을 쏟지 않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01

줄지어

02

끼어드는

03

✓ 현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만큼 정직하다.

☞ 두 번째 문장에서 현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였으므로 '영리하다', '똑똑하다'와 같은 어휘가 들어가야 알맞다.

04

순서

05

✓

마	실		것	을		주	세	요	.
---	---	--	---	---	--	---	---	---	---

☞ 첫 번째 문장은 낱말과 낱말을 띄어 써야 하므로 '먹을V것이V많다.'로 띄어 쓴다.
세 번째 문장은 '께서'와 같은 말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선생님께서V나를V칭찬하셨다.'로 띄어 쓴다.

06

1

줄	지	어
---	---	---

 2

끼	어	들	었	다
---	---	---	---	---

☞ 1 '줄짓다'는 '줄지어', '줄지으니'처럼 'ㅅ' 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
2 '끼어들다'는 [끼어들다], [끼여들다]로 발음할 수 있다. 하지만 쓸 때에는 '끼어들다'로 쓴다.

07

④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으니 차례를 따라야 한다.

☞ 제시된 글에서는 어른이 계시는데 어린아이가 먼저 먹는 것을 보고 엄마가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으니 어른이 먼저 드신 후에 먹어야 함을 나타내는 속담임을 알 수 있다.

- ①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 ②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 ③ 아이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 ⑤ 뽕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08

차	레
---	---

를 지켜야 하는 이유

☞ 이 글은 은서의 이야기를 통해 차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차례를 지키면 좋은 점을 설명하였다.

09

푸름

☞ 줄을 선 사람들의 제일 앞에 가서 선 푸름이는 차례를 지키지 않고 줄에 끼어드는 행동을 한 것이다.

10

④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 은서의 부모님은 차례를 지키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차례를 지킬 때의 좋은 점을 말씀하였다.

01

반대로

☞ '반대'는 두 사물의 모양, 위치, 방향, 순서 따위에서 등지거나 서로 맞선다는 의미이다.

02

묶음

03

☑ 바지를 잘라 입으려고 바지의 길이를 세다.

☞ 마지막 문장에는 자나 저울을 이용해서 길이, 무게 따위의 정도를 알아본다는 의미의 '재다'와 같은 어휘가 들어가지 않았다.

04

나뉘 | 합쳐 | 줄지어

05

1 (가리다 | 가르다) 2 (가리다 | 가르다)

☞ 1 여러 답 중에서 맞는 답을 구별하여 뽑은 것이므로 '가리다'를 써야 알맞다.
2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가르다'를 써야 알맞다.

06

1 개 2 묶음

07

☑ 밥을 잘 먹지 않고 억지로 느릿느릿 밥을 먹다.

08

사자와 호랑이가 가진 꽃 감의 개수 차이

☞ 이 글은 호랑이와 사자가 꽃감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알고, 두 주머니에 든 꽃감의 개수 차이를 알아보는 뱀셈 문제이다.

09

노란색 주머니에 든 꽃감 5 개

파란색 주머니에 든 꽃감 4 개

☞ 호랑이는 꽃감 9개를 두 묶음으로 나누어서 노란색 주머니에 5개, 파란색 주머니에 4개를 넣었다.

10

5 - 4 = 1 이므로, 노란색 주머니에는 파란색 주머니보다 꽃감이 1 개 더 들어 있다.

01 착각

02 ☒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참견하다.

...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다.'는 '조심하다'의 뜻이다.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끼어들다'의 뜻이다.

03 ☒ 아기가 장난감을 찾으려 바구니를 뒤뚱다.

... 마지막 문장은 아기가 장난감 바구니를 거꾸로 들어 위가 밑으로 되고 밑이 위로 되도록 하였다는 뜻이므로 '뒤집다', '뒤엎다'와 같은 어휘가 알맞다.

04 부러트렸다

... • 붙다: 무엇에 닿아서 떨어지지 않다.
• 누르다: 힘을 주어 밀다.

05 1 ㉠ 2 ㉡ 3 ㉢

06 1 끝 어 졌 다 2 뒤 덮 는 다

07 ☒ 조금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해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한다.

... 구더기가 생기는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음식이었다. 그러므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는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방해한다는 뜻의 속담은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이다.
거의 다 된 일을 망쳐 놓는 행동을 뜻하는 속담은 '다 된 죽에 코 빠졌다'이다.

08 새 싹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

... 이 글에서는 새싹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각 조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09 ☒ 벌레

... 새싹이 자라는 데 햇빛, 물, 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0 ① 새싹이 햇빛을 더 잘 받게 하려고

... 새싹이 자라는 데 햇빛이 꼭 필요한데 새싹 주위에 커다란 나뭇가지가 있으면 햇빛을 가려 새싹이 햇빛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새싹 주변의 나뭇가지를 꺾어 주기도 한다.

01 ① 상대 ② 최대한

02 ☒ 동생은 병원에 가기 싫어 느릿느릿 서둘렀다.

☞ 병원에 가기 싫어서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는 의미이므로 급하게 움직인다는 뜻의 '서두르다'가 들어가기에 맞지 않는다.

03 사과하고

☞ • 기억하다: 잊히지 않고 생각에 떠오르다.
• 반성하다: 자기의 행동이나 말에서 잘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다.

04 ① 최대 ② 최소

☞ ① 텔레비전의 소리를 올렸다고 하였으므로 '수나, 양, 정도 따위가 가장 큼'이라는 뜻의 '최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한 시간은 걸린다는 의미의 문장이므로 '최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5 ① (서두르다 | 서투르다) ② ((서둘렀다 | 서툴렀다)

☞ 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면 일에 익숙하지 못할 것이므로 '서투르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② 약속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기 위해 급하게 움직인다는 의미의 문장이므로 '서두르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6 준호

07 ☒ 큰 차이가 없이 거의 같다.

☞ '대동소이'의 한자어 뜻을 보면 같은 부분은 크고 다른 부분은 작다는 뜻을 알 수 있다. '대동소이'가 쓰인 문장의 예를 통해서도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을 알 수 있다.

08 웅이가 나눔 장터에서 물건을 판 일

☞ 이 글에는 나눔 장터에서 웅이가 물건을 팔았고 그 물건에 흠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일이 나와 있다.

09 ☒ 머리띠

☞ 웅이는 나눔 장터에 책가방, 모자, 색연필, 야구공을 팔려고 가져왔다.

10 ② 판 물건에 흠집이 있어서

☞ 준수는 웅이한테 책가방을 사 갔는데 책가방에 큰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웅이는 흠집이 있는 물건을 팔아서 준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

01 ① 소화 ② 급식

02 ① 나 오 다 ② 들 어 가 다

03 작게 | 크게

☞ '작다'는 '알곡이나 과일, 모래 따위의 둥근 물건이나 글씨 따위의 크기가 작다.'라는 뜻으로 '작다'와 뜻이 비슷하다.

04 ① 식구 ② 과식

05 ① ㉠ ② ㉡ ③ ㉢

☞ ① 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므로 ㉠의 의미이다.
 ② 가지 끝에서 꽃봉오리가 솟아났다는 뜻이므로 ㉡의 의미이다.
 ③ 홈페이지에 반 친구들의 사진이 실렸다는 뜻이므로 ㉢의 의미이다.

06 ① ㉡ ② ㉢ ③ ㉠

☞ ① '오물오물'은 '음식을 입 안에 넣고 시원스럽지 아니하게 조금씩 자꾸 씹는 모양'이다.
 ② '꿀꺽꿀꺽'은 '많은 양의 음료수나 음식을 따위가 목구멍이나 좁은 구멍으로 한꺼번에 많이 자꾸 넘어가는 소리나 모양'이다.
 ③ '질경질경'은 '질긴 물건을 거칠게 자꾸 씹는 모양'이다.

07 ② 몹시 놀라다.

☞ 상우는 비싼 장난감 가격을 보고 몹시 놀랐음을 알 수 있다. '눈이 나오다'는 '몹시 놀라다.'라는 뜻이다.

08 음식물이 소화되어 똥이 되는 과정

☞ 이 글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된 후에 남은 찌꺼기가 똥이 되어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09 ① ㉠ ② ㉢ ③ ㉡ ④ ㉣

☞ 이 글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입에서부터 항문으로 나오는 과정을 입→위장→소장→대장 순서대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글의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내용을 짚어 가며 선으로 이어 보자.

10 ☒ 음식물과 담즙, 균이 섞이면서 색이 변해서

☞ 음식물은 소화를 돕는 물질인 담즙, 장 안에 있는 균과 섞여서 갈색 빛으로 바뀐다.

1 등 교

2 기 역

3 표 시

4 수 업

5 반 침

6 1 ✕ 2 ○ 3 ○ 4 ○

1 '지각하다'는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가다.'라는 뜻이다.

7 1 입학 2 교실 3 교무실

1 입	인	사	말
학	교	실	보
반	과	무	건
침	서	사	실

8 1 많이 2 뜨거운 3 방향 4 여러 사람

9 ☒ 순서

'차례'는 '둘 이상의 것을 하나하나 벌여 나가는 순서'라는 뜻이다. 예 차례대로 줄을 서세요.

10 ☒ 비슷하다

'닮다'는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니다.'라는 뜻이다. 예 쌍둥이는 얼굴이 꼭 닮았다.

11 ☒ 두근거리다

'설레다'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다.'라는 뜻이다. 예 생일 파티를 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다.

12 1 ㉞ 2 ㉟

13 ①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 ② '다짐'의 뜻이다. 예 과자를 적게 먹기로 다짐했다.
③ '세다'의 뜻이다. 예 친구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 세다.
④ '조심'의 뜻이다. 예 가위를 쓸 때는 손을 조심하세요.
⑤ '착각'의 뜻이다. 예 월요일인데 일요일이라고 요일을 착각했다.

14 ☒ 상대한다

☞ '상대하다'는 '서로 마주 대하다.'라는 뜻이다.

15 ☒ 어리둥절한

☞ '어리둥절하다'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정신이 얼떨떨하다.'라는 뜻이다.

16 ⑤ 선생님께서 내 그림을 보시고 잘 그렸다고 사과하셨다.

☞ '사과하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다.'라는 뜻이다. ⑤에서 그림을 잘 그렸다는 말은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는 말이므로 '칭찬하다'가 알맞다.

17 1 ☒ 거꾸로

☞ '나란히'는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이 가지런한 상태로'라는 뜻이다.

2 ☒ 의논해서

☞ '반성하다'는 '자기의 행동이나 말에서 잘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다.'라는 뜻이다.

3 ☒ 건넌목

☞ '정류장'은 '버스나 택시 따위가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이다.

18 머리

19 병, 약

20 ☒ 묻는 말과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1 대 답

2 정 직

3 주 위

4 착 각

5 소 개

6 1 ○ 2 ○ 3 ○ 4 ✕

☞ 4 '뒤뚱다'는 '빈 데가 없이 온통 뚱다.'라는 뜻이다. 4 에 제시된 뜻은 '뒹다'이다.

7 1 늪거나 2 다른 3 묶어 놓은 4 깨지거나

8 ☒ 마르다

☞ '젖다'는 '물이 배어 축축하게 되다.'라는 뜻이다. '마르다'는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라는 뜻이므로 '젖다'와 뜻이 반대이다.

9 ☒ 들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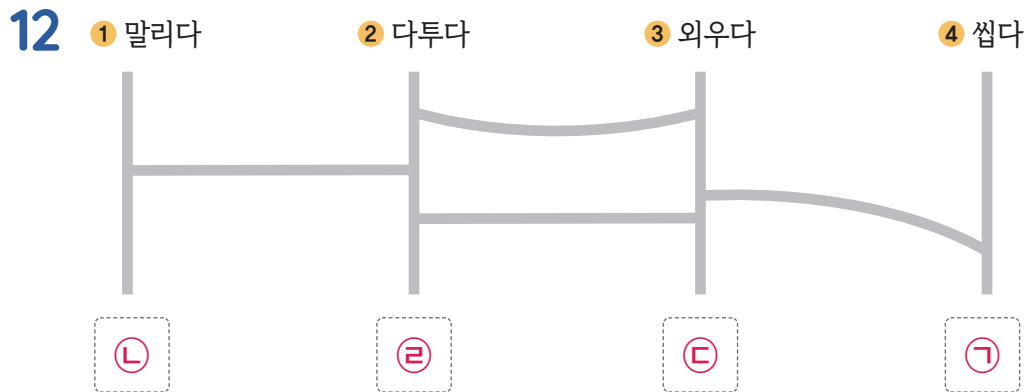
☞ '나오다'는 '안에서 밖으로 오다.'라는 뜻이다. '들어가다'는 '밖에서 안으로 가다.'라는 뜻이므로 '나오다'와 뜻이 반대이다.

10 ☒ 기억하다

☞ '잊어버리다'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을 한순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반면 '기억하다'는 '지난 일을 잊지 않고 외워 두다.'라는 뜻이므로 '잊어버리다'와 뜻이 반대이다.

11 1 ㉠ 2 ㉡ 3 ㉢

☞ 1 낱말 사이의 거리를 멀게 띄어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사과를 세 조각으로 쪼개어 따로따로 되게 했다는 의미이다.
3 가위라는 도구를 써서 종이를 오리는 일을 했다는 의미이다.



13 ☒ 부러뜨리다

... '꺾다'는 '길거나 단단한 물체를 구부려 다시 펴지지 않게 하거나 끊어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단단한 물체를 꺾어서 부러지게 하다.'라는 뜻의 '부러뜨리다'와 바꾸어 쓰기 알맞다.

14 ☒ 주의하세요

... '조심하다'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다.'라는 뜻으로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하다.'라는 뜻의 '주의하다'와 바꾸어 쓰기 알맞다.

15 ☒ 정돈했다

... '정리하다'는 '어지러운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가지런히 바로 잡다.'라는 뜻으로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 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하다.'라는 뜻의 '정돈하다'와 바꾸어 쓰기 알맞다.

16 ① ☒ 적어요.

② ☒ 끼어들지

③ ☒ 무사히

17 ⑤ 소년은 늑대가 없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 '인사말'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에 인사로 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⑤에서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18 종이

19 소

20 마음

속담 · 한자 성어 깊이 알기

병 주고 약 준다

— 본문 14쪽



병은 흔히 ‘아픈 것’을 뜻하고, 약은 ‘병이나 상처 등을 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을 주고 약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 놓고 그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을 준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가 피해를 준 후에 도와주는 척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병 주고 약 준다고 오빠가 계속 약 올려서 내가 울었더니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주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본문 34쪽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가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외양간을 지어 소가 잘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이 낡거나 허술하면 도둑이 소를 쉽게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소를 잃은 주인은 허술했던 외양간을 미리 고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그제서야 빈 외양간을 고쳤습니다. 이 속담은 소를 도둑맞은 뒤에야 소가 없는 빈 외양간을 고치겠다며 힘을 쓴다는 말로, ‘이미 일이 잘못된 후에 대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동생은 받아쓰기 시험을 망친 후에야 나에게 받아쓰기 연습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본문 38쪽

고래는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 몸집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이런 고래에 비해 새우는 몸집이 아주 작습니다. 몸집이 큰 고래들이 싸우는데 그 사이에 작은 새우가 끼어 있으면 새우는 싸움에 휘말려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 속담은 ‘강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약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언니가 오빠와 싸우다가 괜히 옆에 있던 내 주스만 엷질렀다.

손 안 대고 코 푼다

— 본문 62쪽

코에 콧물이 고이거나 나오면 코를 풀어야 합니다. 코를 풀기 위해서는 손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속담에서는 손을 안 대고 코를 푼다고 하였습니다. 이 속담은 손조차 사용하지 않고 코를 푼다는 말로, ‘일을 힘 안 들이고 아주 쉽게 해치운다.’라는 뜻입니다.

예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짝이 내 숙제를 그대로 베꼈다.

오리무중

—
본문 22쪽

다섯
마을
안개
가운데

오 (五)
리 (里)
무 (霧)
중 (中)

‘오 리’는 아주 긴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한자 성어는 오 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 ‘장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 오 리에 안개를 만드는 재주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학문과 재주를 배우려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면 안개를 만들어서 자신이 있는 곳을 숨겼다고 합니다.

예 범인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 사건은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졌다.

동문서답

—
본문 42쪽

동쪽
묻다
서쪽
대답하다

동 (東)
문 (問)
서 (西)
답 (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쪽이 어디냐고 묻자, 지나가는 사람은 엉뚱하게도 서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한자 성어는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라는 뜻으로, 묻는 말과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숙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짝은 과자가 맛있다고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하였다.

작심삼일

—
본문 54쪽

만들다
마음
셋
날

작 (作)
심 (心)
삼 (三)
일 (日)

매일 책을 꾸준히 읽겠다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루이틀만 열심히 할 뿐 그 이후로 점점 하지 않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이 한자 성어는 ‘단단히 다짐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 일기를 매일 쓰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고 말았다.

남녀노소

—
본문 58쪽

남자
여자
늙다
젊다

남 (男)
녀 (女)
노 (老)
소 (少)

이 한자 성어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남녀’는 ‘남자와 여자’, ‘노소’는 ‘늙은 이와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저 넷 중에 무엇이든 속하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 그 연극은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좋아할 만하다.

memo

